

필리핀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수빅
파견대학	바탄반도주립대학	기간	2018.12.24. ~ 2019.1.17.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바탄반도주립대학
수업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8시부터 오후5시까지 진행됨. 쉬는시간은 10분 주어져며 식사는 아침7시~8시 점심12시~1시 저녁 5시~6시로 구성되어 있음.
Activity	Activity활동이라 해서 외국인선생님들과 서로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됨. 매주 금요일은 긴 양말day, 체크셔츠day등 이라해서 캠퍼스 내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조건에 맞게 입어야 하는 날이었고, 덕분에 흥미롭고 보람차게 하루를 보낼 수 있었음.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필리핀은 보통 12월~5월까지 건기 이 외에 우기라하는데 이번 어학연수를 건기때 가서 생각한만큼 비도 많이 오지 않았고 날씨가 거의 항상 맑았기 때문에 아침마다 맑은 하늘을 보고 시작할 수 있었음.
안전	시내로 나가게 되면 거리마다 경찰이 배치되어 있어 치안은 우리나라 못지않게 안전하다고 볼 수 있었음.
숙소	학교기숙사(√) 홈스테이() 외부 숙소() 기타() 밤에 벌레들이 많아서 가끔 기숙사내로 들어올 경우가 있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시설은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함.
식사	학교식당(√) 홈스테이 () 외부식당 (√) 기타() 학교식당은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함. 한국에서 나오는 음식들이 주로 나왔음. 외부 음식은 대체적으로 짠 편에 속했지만 그렇지 않은 음식들도 많았으며 맛있었음.
교통	안전함.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유학허가증(SSP)		출국 전 사전 납부
기념품,선물	8만원정도	
외부식당,놀거리등	20만원	
합계		약30만원 사용.

5. 출국 전 준비사항

반팔 3~4벌, 긴팔1~2벌, 바지2~3벌 양말, 팬티등 최소한의 소량으로 가지고 왔고 수건이나 삼푸등은 현지에서 구입하여 쓰다가 버림. 외국어로 의사소통이 잘 되진 않을까하는 마음에 기본회화정도 간단하게 공부를 해갔음. 어학연수를 놀러간다고보다 현지인과 의사소통을 하며 공부할 생각으로 갔음. 돈은 적당히 300달러정도 가지고 가면 부족할 정도는 아니었음.

6. 본인 소감 및 평가

언어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학연수와 같은 외국에서 몇 달동안 살아보는것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었다. 아무래도 외국에서 살다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순간부터 외국어가 모국어처럼 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 듯싶다. 이번 어학연수 프로그램은 내게 많은 도움을 주고, 많은 생각을 해줄 수 있었던 거 같다. 전반적으로 학교에서 보내주던 프로그램인지라 일정들이 모두 잡혀있었지만 나쁘지만은 않았던거 같다. 평소 부지런하지 않은 내 삶은 이번 기회를 통해 부지런해질 수 있었고 영어공부에 대한 자신감이 확실히 향상된 느낌을 받았다. 또 외국인과의 의사소통하는데 있어 거부감이 있던 고정관념도 없앨 수 있었다. 일정이 빡빡하긴 했지만 중간중간 외국인선생님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도 많았기에 지루하거나 힘들지는 않았다. 오히려 지금 생각해보면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간거 같다. 이런 기회가 많지 않음을 깨닫고 하루를 의미있고 보람차게 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후 꾸준히 언어를 공부하고 교환학생도 생각해 볼 것이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